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5.56%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3.8% 증가하고 대형마트부문이 2.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8.9% 증가함 - 판매액 증가의 원인으로는 국제금값 및 유가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고 전도시 평균인 0.2%보다 소폭 하락함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교양오락, 외식숙박 등은 상승.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증가한 61.5%로 남자는 74.1%, 여자는 50.9%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천명(-0.3%) 감소한 4,929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0.9%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여자는 15천명(-0.7%)으로 남자는 2,846천명, 여자는 2,083으로 각각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실업률은 4.1%로 전월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실업률인 3.1%에 비해 1.0% 높은 수준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9,40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공공부문은 토지조성 및 공원공사, 신규 주택 및 점포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공장 및 창고공사,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감소로 건설수주액 감소 ○ 8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0.4%)에 비해 상승세 둔화 - 전월에 비해 강북지역, 강남지역 모두 동일한 0.2% 상승 ○ 8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2% 상승으로 전월(0.2%)의 상승세 유지, 전반적으로 안정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70조 7,955억원 규모 ○ 7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94개로 전월대비 168개 법인 증가 ○ 8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3개로 전월보다 7개 감소 ○ 서울시 전년동월대비 수입과 수출은 모두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수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 수출 1순위는 반도체, 다음은 편직물, 고무제품 등의 순 - 8월 서울의 수입은 7.9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3.7%의 증가율로 수출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수입 1순위도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철강편의 순

| 생 · 산 |

7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및 서비스업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중 산업생산은 견조한 증가세 유지, 광공업 생산은 수출 확대 및 소비재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 확대, 재고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차가 큰 폭 감소, 반도체 및 부품 등이 부진하여 지난달보다 0.2%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수출확대 등으로 9.1% 증가, 조업일수 조정지수로는 6.4%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지난 달에 비해 1.1%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7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7(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의약품 등에서 감소함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감소, 반면 경공업부문 소폭 상승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8.0% 감소하였으나, 지난 달 보다 감소세 둔화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는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의약품 등에서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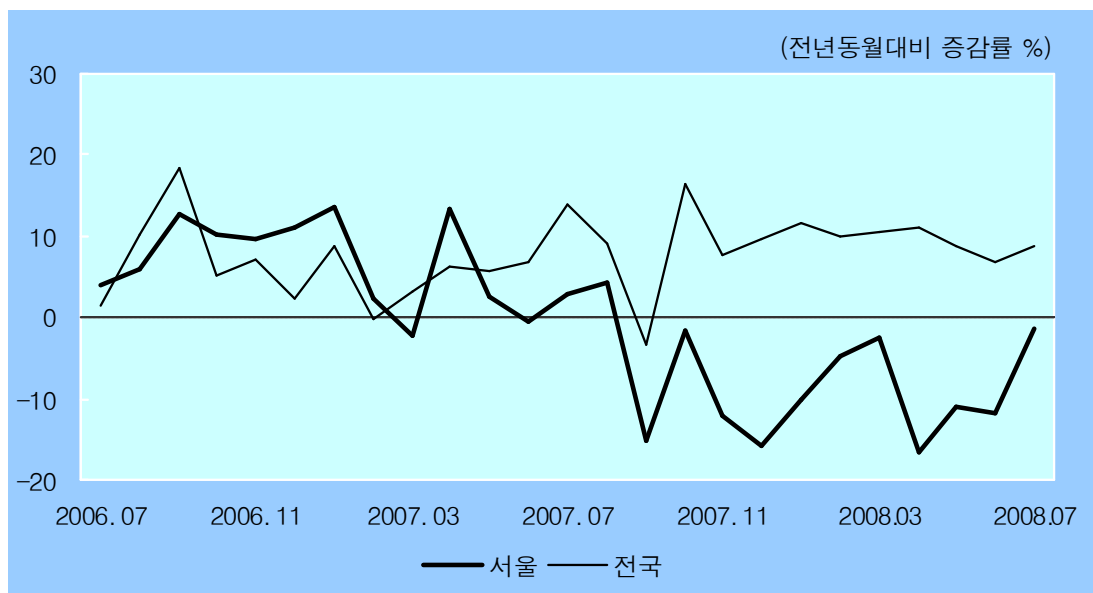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3월	4월	5월p	6월p	7월
전 년 동 월 비	전국	14.0 (1.6)	10.6 (1.5)	11.1 (1.2)	8.9 (-0.6)	6.9 (0.0)	8.7 (-0.6)
	서울 (제조업)	2.9 (1.2)	-2.6 (12.4)	-16.7 (-6.6)	-11.1 (-3.7)	-11.9 (-7.1)	-1.3 (13.4)
	중공업	2.0 (-3.2)	-15.5 (2.8)	-39.4 (-13.6)	-21.7 (0.6)	-23.7 (-2.4)	-18.7 (3.2)
	경공업	3.6 (4.5)	6.2 (18.5)	1.1 (-2.9)	-4.5 (-5.7)	-3.7 (-9.7)	9.8 (19.2)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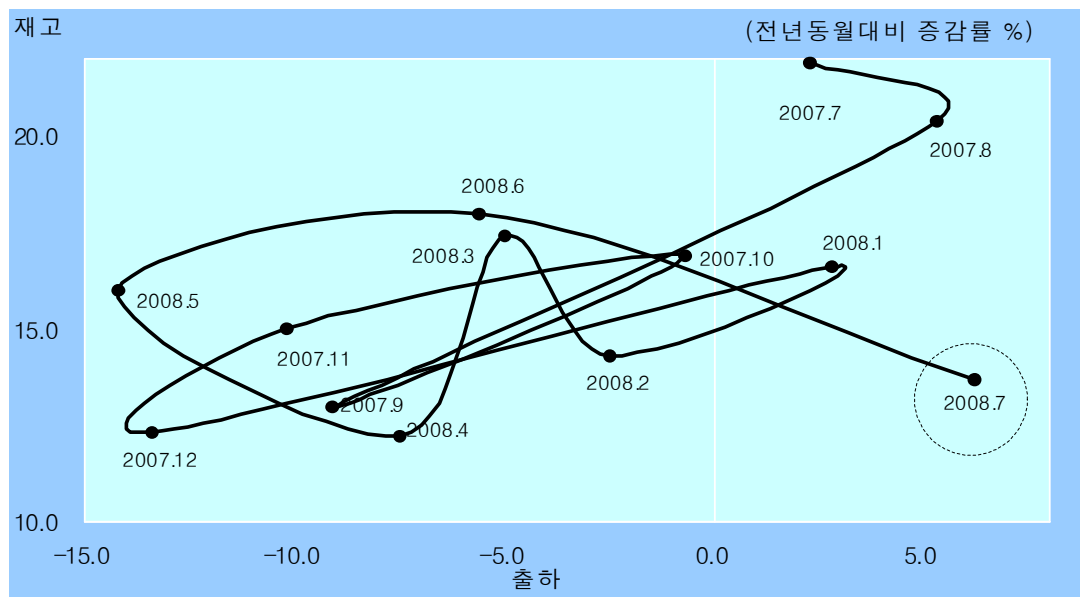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68.2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식료품, 1차급속,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출하는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증가

- 7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6.6%로 전월대비 1.2%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57.5%로 전월대비 14.6%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그리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4.3%p 상승한 175.1%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4%p 감소한 147.4%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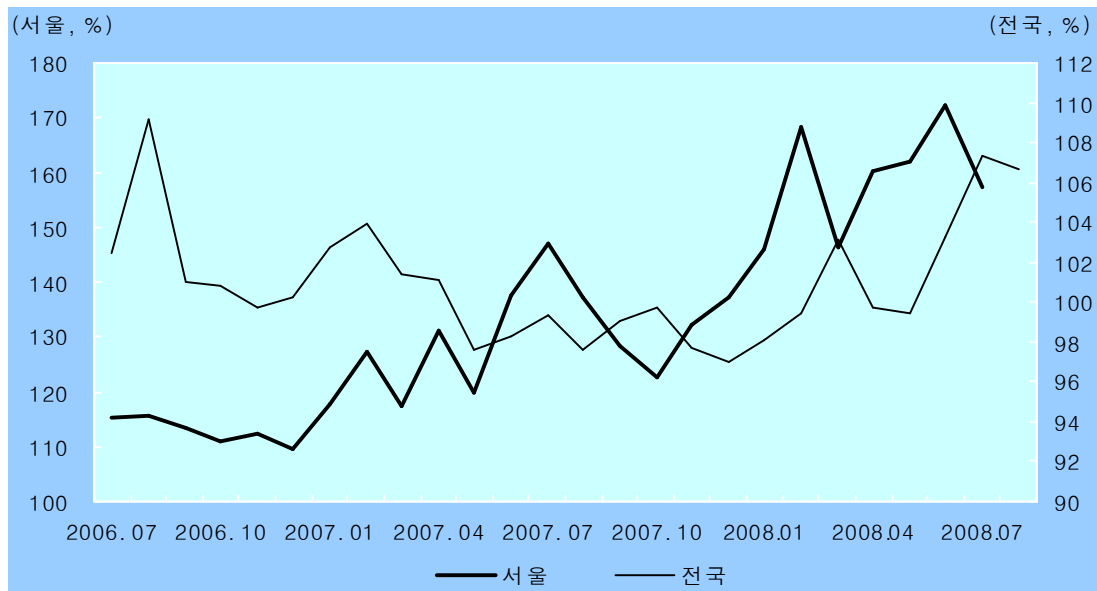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재고율	전국	97.6	99.7	99.4	103.3	107.8	106.6	-1.2
	서울	147.1	146.3	160.0	162.1	172.1	157.5	-14.6
	중공업	152.7	150.2	179.9	159.5	170.8	175.1	4.3
	경공업	145.3	142.6	148.8	161.0	171.4	147.4	-2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7월 서울 대형소매점 국제금값 및 유가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7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차량용 연료를 비롯한 비내구재 비중이 2.0%p 커진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의류 및 신발,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는 축소되었음

■ 서울 대형소매점 국제금값 및 유가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7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300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국제 금값 및 유가 상승 등에 의해 귀금속, 서적·문구류의 단가상승 및 여행용 가방류 구매 증가로 5.6%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 국제금값 상승으로 귀금속류 단가 상승 및 여행용 가방류 판매 호조로 3.8%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휴가철 돌입으로 여행 관련 서적·문구 및 운동·오락용품 판매 증가로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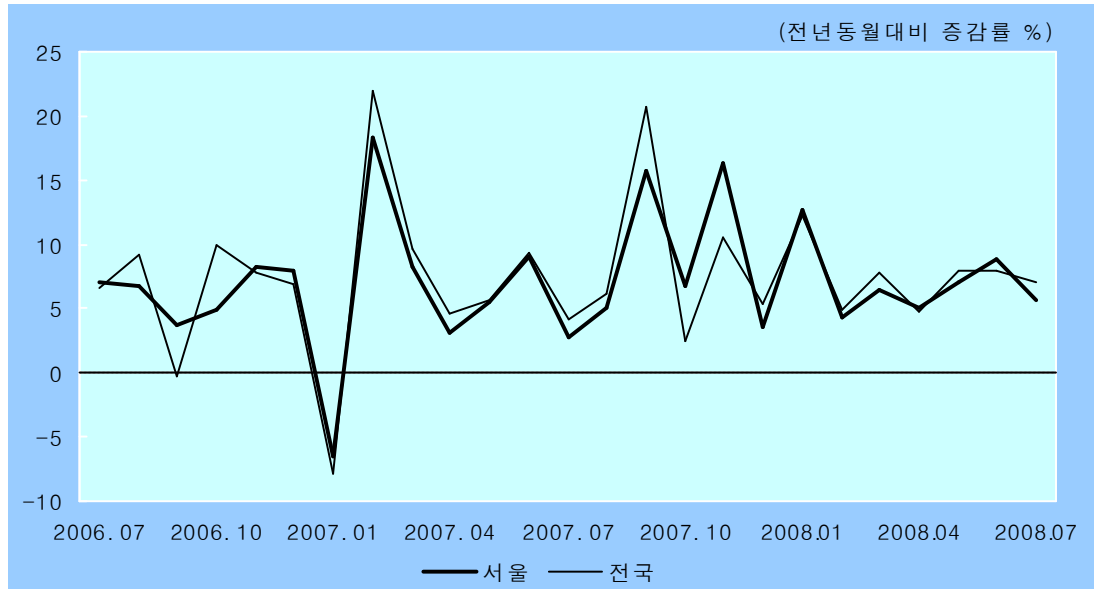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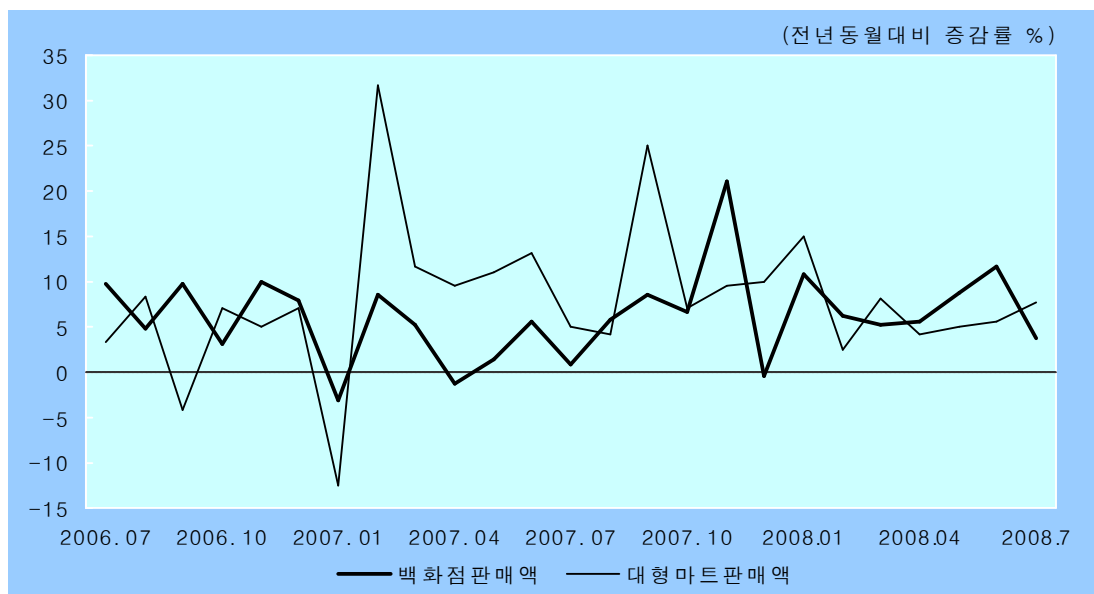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판매액	전국	3784.7 (4.2)	4190.4 (7.8)	4017.2 (4.7)	4230.5 (8.0)	3954.0 (7.9)	4052.86 (7.1)
	서울	1230.9 (2.8)	1398.2 (6.5)	1376.7 (5.0)	1416.0 (7.1)	1333.8 (8.8)	1300.0 (5.6)
	백화점	658.3 (0.8)	777.7 (5.2)	793.1 (5.6)	798.6 (8.8)	731.1 (11.6)	683.3 (3.8)
	대형마트 (할인점)	572.5 (5.1)	620.4 (8.2)	583.5 (4.1)	617.4 (4.9)	602.6 (5.6)	616.7 (7.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8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5.6%상승, 전년동기대비 4.7%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복신발, 교양오락, 외식숙박은 상승하였고, 교통, 기타잡비는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6.6%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0(2005=100)로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2%) 보다 상승률이 소폭 하락
- 인천, 광주, 경기, 전남 등은 전도시 평균과 같으며, 그 외 대전, 강원, 충북 등은 전도시 평균 보다 크게 하락, 부산만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의복신발, 보건의료, 통신, 교육 부문은 보합,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교양오락, 외식숙박 등은 상승하였으나, 가구집가가사용품, 교통, 기타잡비 부문 하락,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전국:-0.4%)하락, 전년동월대비 5.5%(전국:6.6%)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7%(전국:4.0%) 상승, 전년 동월대비 3.3.5%(전국: -3.1%)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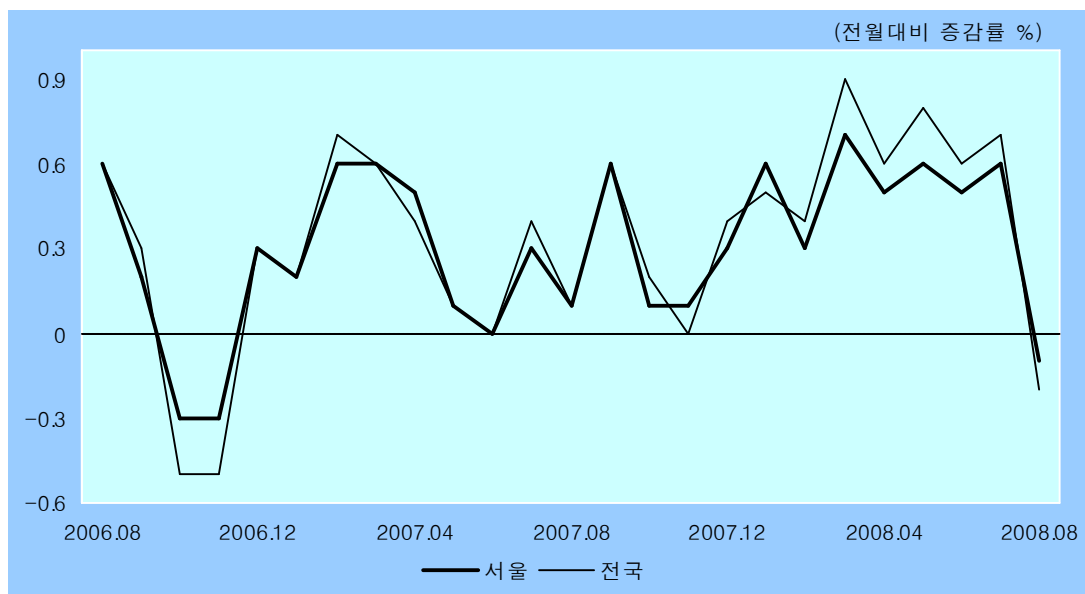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전국		0.1	0.9	0.6	0.8	0.6	0.7	-0.2
			2	3.9	4.1	4.9	5.5	5.9	5.6
	서울		0.1	0.7	0.5	0.6	0.5	0.6	-0.1
			2.2	3.6	3.5	4.1	4.6	5	4.8
	상품 성질별	상품	0.1	0.2	0.8	1.5	0.9	1.4	-0.5
			0.8	3.9	4.3	5.9	7.1	8	7.4
		서비스	0.1	0.9	0.3	0.2	0.3	0.3	0.2
			3	3.2	3.1	3.1	3.4	3.5	3.6
	생활물가		-0.1	0.9	0.5	0.7	0.6	0.6	-0.3
			2.7	4.3	4.1	4.7	5.5	5.7	5.5
	신선식품		0.2	-4.4	-1	-1	-5.4	3.5	4.7
			-1.2	-5.1	-6.7	-5.1	-7.2	-7.5	-3.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8월 15세 이상 인구는 39,6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6명(1.1%)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89천명으로 112천명(0.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092천명으로 55천명(0.5%) 증가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8월중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4천명(0.9%)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는 1.0% 증가하였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1.4)	0.6 (1.7)	0.7 (1.6)	0.6 (0.8)	0.5 (0.1)	0.5 (-0.2)	0.7 (-1.2)
	서울	1.1 (-0.8)	1.0 (1.1)	-0.1 (0.0)	-0.3 (0.3)	0.0 (-0.1)	-0.3 (0.2)	-0.1 (-0.5)
	남자	1.6 (-0.5)	0.2 (0.9)	-0.4 (0.2)	0.1 (0.7)	-0.3 (-0.4)	-0.4 (0.6)	-0.4 (-0.5)
	여자	0.4 (-1.2)	2.1 (1.4)	0.4 (-0.2)	-0.8 (-0.4)	0.3 (0.4)	-0.2 (-0.3)	0.3 (-0.6)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7	61.1	62	62.4	62.5	62.3	61.5
	서울	62.8	62.4	62.4	62.6	62.5	62.6	62.2
	남자	75.1	73.8	74	74.5	74.1	74.5	74.1
	여자	51.2	51.6	51.5	51.3	51.5	51.3	50.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8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8월 취업자는 23,6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명(0.7%)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천명(0.8%) 증가하였고, 여자는 9,837천명으로 54천명(0.6%)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 계층에서는 증가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8월중 취업자는 4,9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0.3%)이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0.9%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6천명, 여자는 2,0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여자는 15천명(-0.7%)이 각각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50천명(3.7%), 전가운수통신금융업 6천명(1.0%), 건설업 4천명(0.9%)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1천명(-15.2%), 제조업 66천명(-9.7%),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9천명(-0.4%)이 각각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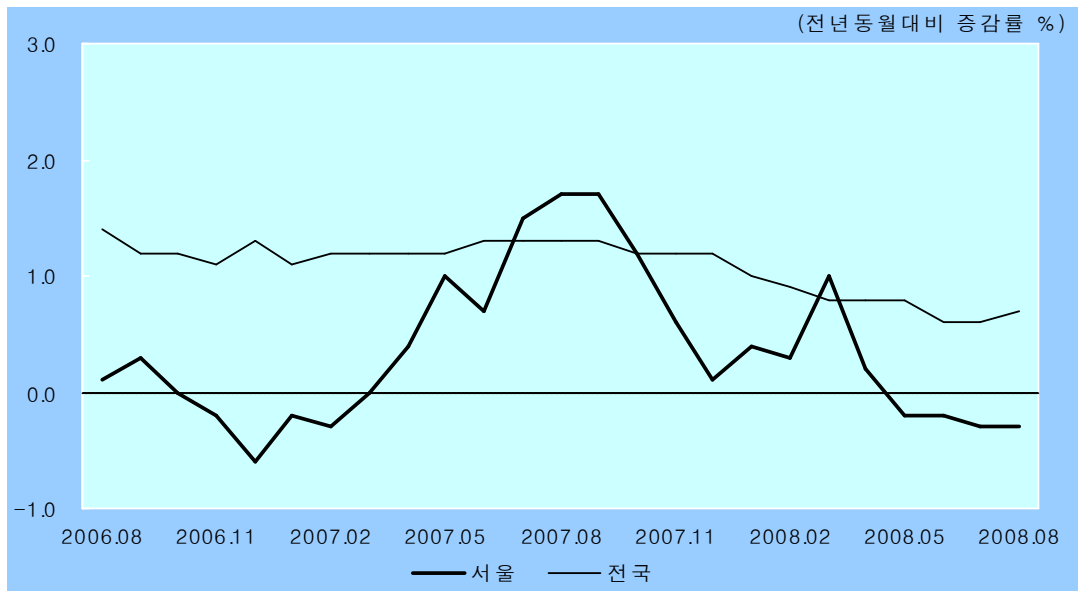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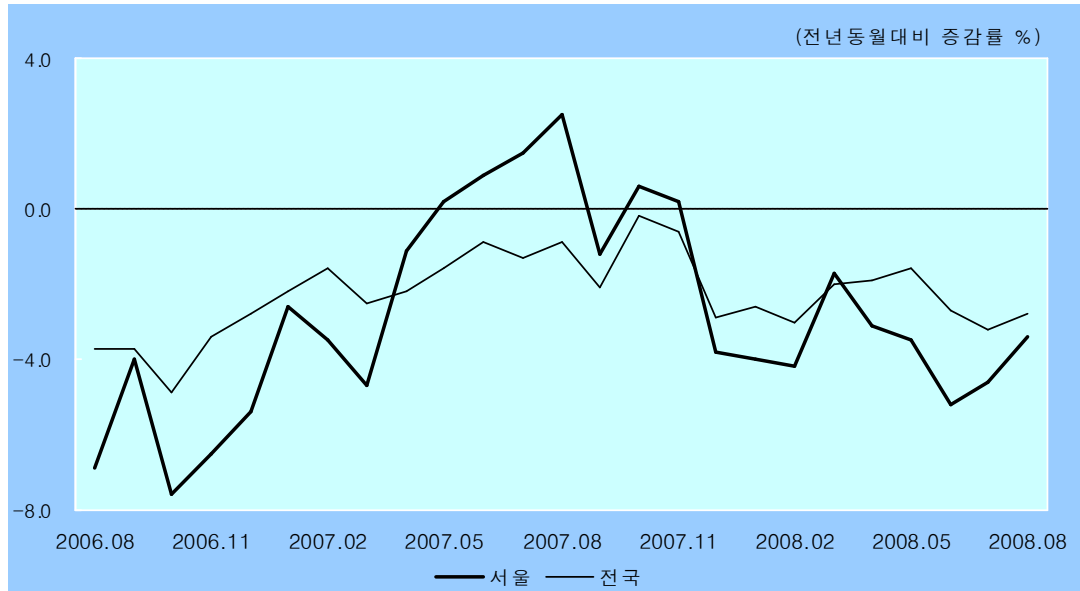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전국	1.3 (-1.2)	0.8 (1.8)	0.8 (1.7)	0.8 (1.0)	0.6 (0.1)	0.6 (-0.2)	0.7 (-1.2)
	서울	1.7 (-0.8)	1.0 (1.5)	0.2 (0.3)	-0.2 (0.4)	-0.2 (-0.2)	-0.3 (0.2)	-0.3 (-0.9)
	남자	1.6 (-0.7)	0.4 (1.5)	0.1 (0.3)	0.2 (1.1)	-0.1 (-0.4)	-0.1 (0.4)	-0.1 (-0.7)
	여자	1.9 (-1.0)	1.9 (1.5)	0.3 (0.4)	-0.7 (-0.4)	-0.3 (0.2)	-0.6 (-0.1)	-0.7 (-1.1)
청년층 취업자	전국	-0.9 (-3.0)	-2.0 (-1.2)	-1.9 (0.7)	-1.6 (1.5)	-2.7 (-1.2)	-3.2 (2.3)	-2.8 (-2.6)
	서울	2.5 (-2.3)	-1.7 (0.5)	-3.1 (1)	-3.5 (1.4)	-5.2 (-2.1)	-4.6 (2.3)	-3.4 (-1.1)
고령층 취업자	전국	5.5 (-0.6)	3.9 (5.2)	1.3 (5.0)	-3.4 (1.4)	0.4 (-0.1)	1.8 (-0.9)	1.5 (-0.8)
	서울	8.1 (-0.7)	2.9 (2.5)	-0.9 (0.4)	1.5 (3.4)	0.5 (-2.2)	-0.9 (0.0)	-4.8 (-1.5)
	55-59세	7.2 (0.2)	7.3 (1.9)	5.6 (0.8)	6.3 (2.9)	9.5 (-0.3)	4.1 (-1.8)	5.2 (1.3)
	60세 이상	8.7 (-1.3)	-2.4 (5.4)	-5.8 (0.1)	-2.2 (3.7)	-5.9 (-3.8)	-4.6 (1.5)	-4.7 (-1.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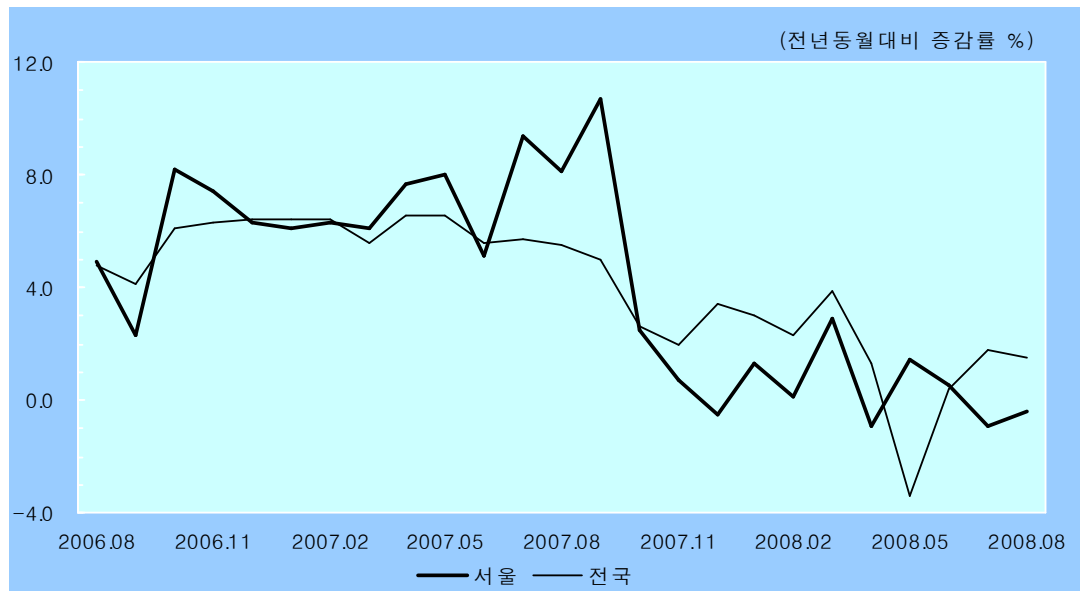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3.9%), 사무종사자 20천명(2.6%), 서비스·판매종사자 28천명(2.3%)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8천명(-4.2%), 전문·기술·행정관리자 7천명(-0.5%)이 각각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89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5천명(-1.1%), 임금근로자는 2천명(0.0%)이 각각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천명(-0.2%), 무급가족종사자는 12천명(-6.5%)이 각각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천명(1.1%), 일용근로자는 21천명(4.0%)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3천명(-3.6%)이 감소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4.6%)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6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0.4%)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천명(-6.4%), 18-35시간 취업자는 38천명(-4.1%)이 각각 감소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천명(3.4%)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63천명(-4.9%)이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별	제조업	-7.6 (-0.4)	-9.6 (-4.4)	-1.0 (8.4)	-2.9 (0.4)	-3.0 (-0.7)	-4.7 (-2.1)	-6.3 (-)
	SOC 및 기타서비스업	3.2 (0.4)	2.1 (-0.5)	1.5 (0.4)	0.8 (0.3)	0.3 (0.6)	0.5 (0.1)	0.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0.0 (0.8)	2.5 (-1.4)	1.9 (1.1)	1.0 (0.6)	0.1 (0.8)	-0.6 (1.0)	0.0 (-)
	도소매·음식숙박	-5.0 (1.7)	0.7 (-0.1)	0.9 (0.6)	1.0 (-1.6)	1.0 (-0.4)	1.5 (0.3)	2.3 (-)
	전기·운수·통신·금융	3.3 (0.7)	3.0 (-0.8)	5.0 (-2.3)	0.9 (1.4)	-0.1 (2.0)	1.9 (0.0)	-1.6 (-)
	건설업	2.5 (1.9)	4.0 (3.0)	-2.5 (0.5)	-1.1 (3.6)	-0.4 (0.8)	1.0 (-3.9)	1.3 (-)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6.2 (-1.4)	1.4 (-2.4)	3.3 (1.9)	1.1 (-0.6)	1.3 (0.7)	-2.5 (0.0)	0.6 (-)
	기능·기계작·조립·단조종사	-0.7 (1.7)	-5.2 (-1.9)	-5.1 (1.4)	-3.8 (3.6)	-4.2 (0.8)	-2.6 (-1.3)	-5.4 (-)
	서비스·판매종사자	-2.6 (2.0)	5.5 (-0.3)	4.7 (2.1)	2.3 (-3.3)	1.5 (-0.6)	3.6 (-0.1)	1.9 (-)
	사무종사자	3.1 (-1.3)	0.3 (2.1)	2.3 (0.1)	2.4 (2.3)	1.4 (0.8)	2.8 (1.3)	3.5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6 (0.7)	0.4 (-1.5)	1.0 (0.8)	0.8 (1.5)	1.1 (1.2)	1.1 (-0.6)	0.9 (-)
	비임금근로자	1.1 (-0.8)	0.2 (0.4)	1.2 (3.5)	-1.5 (-2.9)	-3.8 (-1.9)	-3.7 (1.2)	-3.7 (-)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8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8월 실업자는 7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4%) 증가하였고, 여자는 2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이었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2.5%로 변동없었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0대, 4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20대, 50대에서 상승하였고, 30대는 변동없었으며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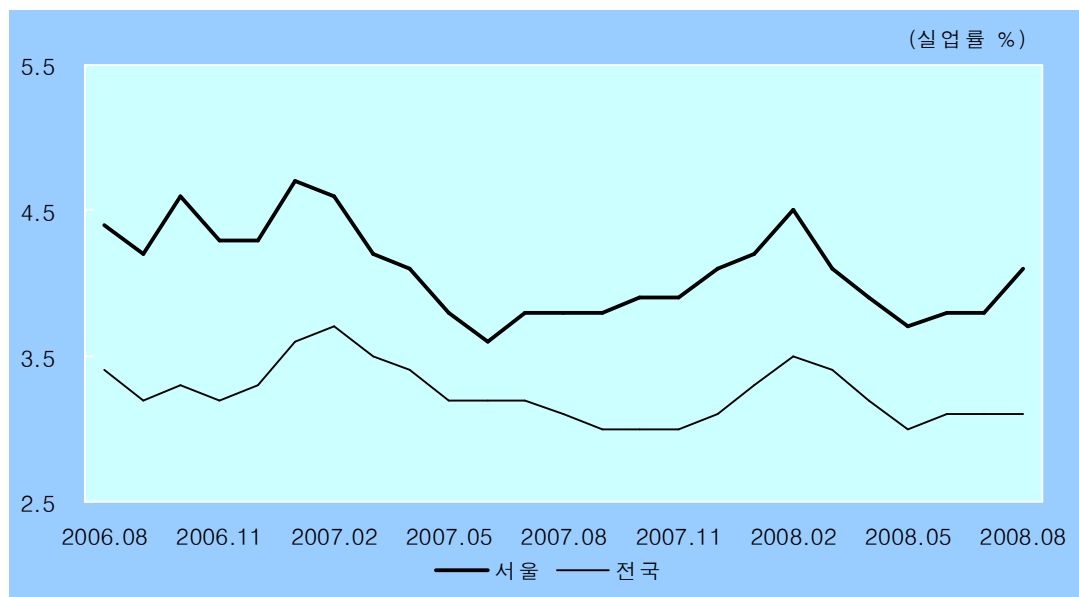
- 2008년 8월 실업자는 2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6.0%)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8천명으로 9천명(-6.8%)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2천명으로 21천명(34.9%)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3%로 0.3%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3.8%로 1.0%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3.1	3.4	3.2	3	3.1	3.1	3.1
서울		3.8	4.1	3.9	3.7	3.8	3.8	4.1
성 별	남자	4.6	4.4	4.3	4	4	4.1	4.3
	여자	2.8	3.8	3.3	3.3	3.6	3.4	3.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2,73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9,40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7.8%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15.1%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5.0% 감소
- 공공부문은 토지조성 및 공원공사, 신규 주택 및 점포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공장 및 창고공사,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감소로 수주액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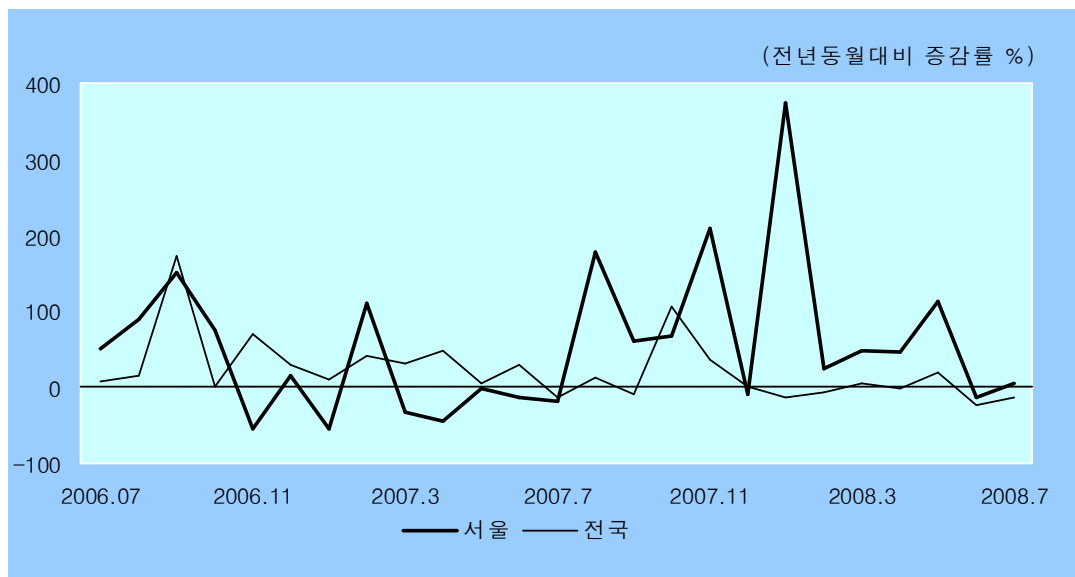
- 2008년 7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720.3천㎡로 전년동월 대비 11.3% 증가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고, 연립주택은 94.8% 감소, 아파트는 868.8%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274.3%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문교 및 사회(162.1%)와 기타(4.0%)부문은 증가, 상업(-29.5%)과 공업(-98.8%) 부문은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6,059	8,366	7,645	8,431	9,115	5,274	-13.0	-42.1
서울		890	1,139	1,423	2,731	1,914	940	5.6	-50.9
발주 자별	공공	55	232	135	671	74	230	315.1	210.8
	민간	834	889	1,288	2,049	1,835	709	-15.0	-61.4
공 종 별	건축	877	1,100	1,417	2,307	1,877	813	-7.3	-56.7
	토목	8	37	5	423	27	122	1466.1	351.9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3,341.9	1,706.4	3,342.4	4,690.4	4,073.2	3,720.3	11.3	-8.7
주거용	소계	260.7	49	95.1	262.7	1,839.0	975.7	274.3	-46.9
	단독	16.3	7.4	15.4	13.1	10.0	15.9	-2.5	59.0
	연립	141.7	2	14.6	8.8	8.6	7.4	-94.8	-14.0
	아파트	98.3	39.6	65.1	240.8	1,820.4	952.4	868.9	-47.7
비주거용	소계	3,081.2	1,657.40	3,247.30	4,427.70	2,234.2	2,744.6	-10.9	22.8
	상업	2,468.3	1,036.70	2,368.50	3,764.00	1,707.8	1,740.0	-29.5	1.9
	공업	109.4	50.6	152.1	204.9	138.6	1.3	-98.8	-99.1
	문교/사회	312.6	502.3	673.3	357.1	321.5	819.2	162.1	154.8
	기타	177.0	67.8	53.4	101.7	66.3	184.1	4.0	177.7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0.2%로 상승세 둔화된 안정된 모습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여름철 비수기와 거시경제여건 불투명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상승세가 2개월 연속(7월 0.4% 상승) 둔화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전월대비 축소되고 상승지역이 감소하였으나 서울인천 등 일부 개발호재 지역의 국지적인 상승세는 지속됨

■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됨(전월대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0.2% 상승하여 전월(0.4%)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
-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하던 서울 강북지역(0.2%)은 상승세가 4개월 연속 둔화된 가운데 강북구(0.5%)와 성북구(0.4%)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등의 호재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
- 강남지역(0.2%)에서는 구로구(1.1%)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로 금천구(0.9%)가 군부대 이전 및 신(新)안산선 개발 호재로 전월에 비해 상승 폭 확대. 한편, 강남구(-0.2%)와 강동구(-0.1%)는 잠실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급매물 증가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에 따른 매수수요 부족으로 3개월째 하락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전국	99.1		103.9	104.1	5.0
서울	98.4		106.6	106.8	8.5
아파트	99.1		106.1	106.1	7.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7.2	109.5	109.7	12.9
	강남	99.5	103.6	103.8	4.3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강북구, 광진구, 성북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0.2%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둔화(전월 0.5% 상승)
- 강북구(0.5%)와 성북구(0.4%)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등의 호재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
- 그 밖에도 광진구(0.4%), 동대문구(0.3%), 은평구(0.3%)는 강북 지역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마포구(0.2%)는 강북 지역 평균 상승세와 일치
- 반면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 등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이 없었음(상승률 0.0%)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강남지역(0.2%)에서는 구로구(1.1%)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로 금천구(0.9%)가 군부대 이전 및 신(新)안산선 개발 호재로 전월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관악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강남구(-0.2%)와 강동구(-0.1%)는 잠실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급매물 증가와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에 따른 매수수요 부족으로 3개월째 하락하였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는 상승 폭(0.0%)이 전월의 수준을 유지

■ 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매매가격은 1,832만원(8월 29일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43만원), 서초구(2,705만원), 용산구(2,559만원), 송파구(2,471만원), 양천구(2,035만원), 광진구(1,869만원)로 나타났다
- 금천구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6월에 1,006만원에 도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긴데 이어 7월에는 1,020만원, 8월에는 1,026만원을 기록하여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달 서울의 평균을 초과하였던 강동구(1,826원)는 이번 달에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락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8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0.2%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 서울(0.1%)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유지된 반면, 재개발 이주 수요가 증가한 인천(0.7%)과 교통개선 호재 및 유입인구 증가로 충남(0.6%)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 연립주택(0.5%)이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단독주택은 보합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보합, 중형이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소형이 0.3%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

■ 8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2% 상승으로 전월(0.2%)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
- 강북지역(0.2%)에서는 강북구(0.4%)가 미아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마포구(0.3%)가 아현뉴타운 및 인근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은평구(-0.5%)는 은평뉴타운 입주에 따른 매물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중랑구(-0.1%)도 수요 감소로 하락
- 강남지역(0.1%)에서는 구로구(0.9%)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양천구(0.6%)가 목동을 중심으로 방학 이사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송파구(-0.5%)와 강동구(-0.2%)는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하락
- 서울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보합, 단독주택이 0.1% 상승, 연립주택이 0.4% 상승하며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 지속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월	7월	8월	
전국	99.3	102.5	102.7	3.4
서울	99.0	103.6	103.8	4.8
아파트	100.1	102.1	102.1	2.0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8.2	104.9	105.1	7.0
강남	99.8	102.3	102.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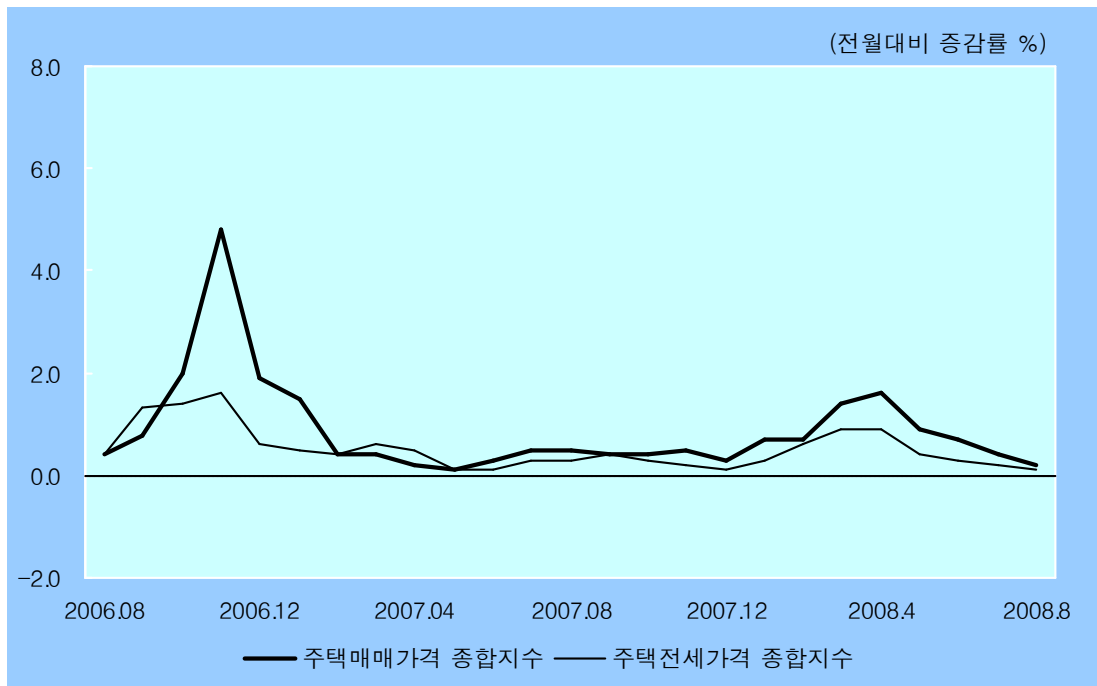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강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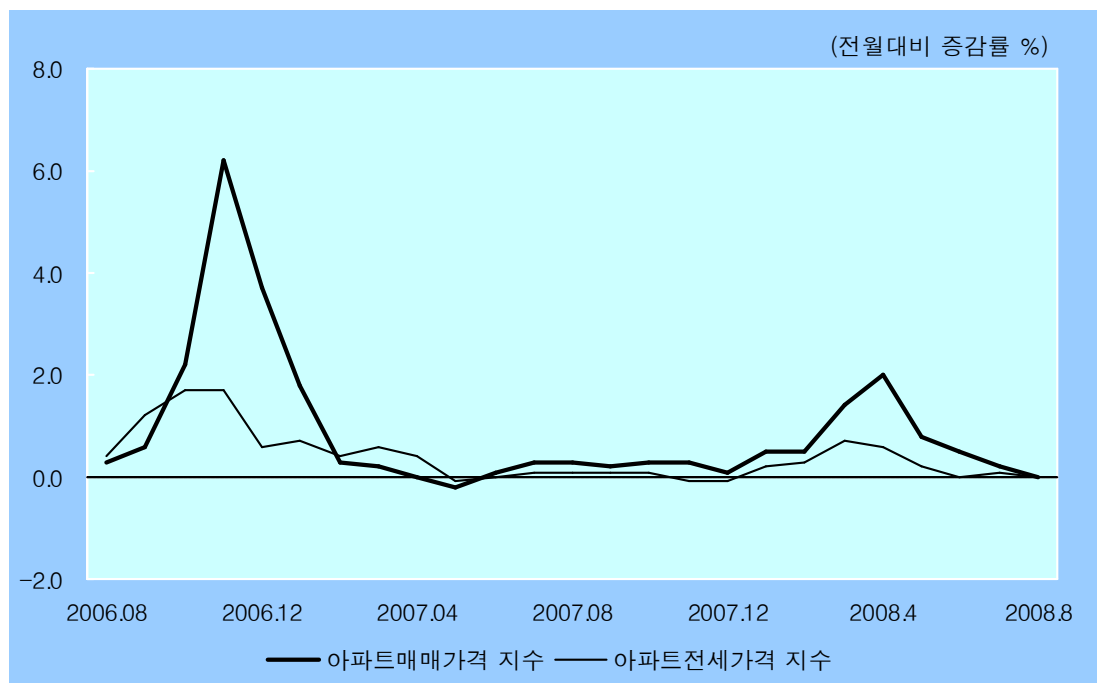
- 강북지역(0.2%)에서는 강북구(0.4%)가 미아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마포구(0.3%)가 아현뉴타운 및 인근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도 0.3% 상승하여 강북지역 평균을 상회
- 강남지역(0.1%)에서는 구로구(0.9%)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양천구(0.6%)가 목동을 중심으로 방학 이사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며 관악구(0.3%), 금천구(0.2%)도 강남지역 평균을 상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 39.8%, 2008년 6월 39.3%, 7월에는 39.2%, 8월에는 39.1%로 하락세 지속
- 2008년 8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1% 하락
- 서울은 전국 평균 52.5%보다 13.4%p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전국과의 격차(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 5월: 13.3%p, 6월: 13.5%p, 7월: 13.4%p) 폭이 지난달에 다소 좁아진데 이어 8월에는 전월의 격차 수준 13.4%p를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8%, 강남 36.8%로 8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강남북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3월: 8.7%p, 4월: 7.1%p, 5월: 6.4%p, 6월: 5.7%p, 7월: 5.1%p)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CD(91일) 유통수익률은 상승세 지속하다가 최근 일정 수준 유지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일정 수준에서 등락
 - 8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인상(8.7일) 이후 국제원유가 및 환율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대체로 5.7 ~ 5.9% 사이에서 등락
- CD(91일) 유통수익률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일정 수준 유지
 - 8월 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금통위, 7.10일)이 있었던 7월부터 상승하다가 8.14일 이후 5.79% 수준을 유지
- 8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역전
 - 8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02%p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소폭 감소한데 비해 CD 유통수익률은 크게 상승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로 역전
 - 이는 최근의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 금리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가

- 8월 기준 KOSPI 지수 연중 최저치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
 - KOSPI 지수는 국제금융시장불안 재연 등의 영향으로 9월 5일 연중 최저수준인 1,404p를 기록하였다가 미국 재무부의 패니매프레디맥 자금지원 방침(9.7일 발표)에 힘입어 상당폭 반등(7월말 1,595p → 8월말 1,474p → 9.5일 1,404p → 9.9일 1,455p)
- 8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대규모 순매도 지속
 -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글로벌 디레버리지(de-leverage) 추세 등으로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 지속. 기관투자자는 순매수 규모를 축소하였고 개인투자자는 매도·매수 규모가 비슷

- 외 국 인: 6월 -5.2조원 → 7월 -5.1조원 → 8월 -3.1조원
- 기관투자자: 6월 +2.2조원 → 7월 +4.4조원 → 8월 +2.6조원
- 개인투자자: 6월 +2.0조원 → 7월 +0.1조원 → 8월 -0.0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리	국고채(3년)	5.43	4.88	5.46	5.9	5.80	5.77	-0.52
	CD(91일물)	5.29	5.36	5.36	5.37	5.68	5.79	1.94
	콜금리(1일)	4.98	4.99	4.97	4.95	4.98	5.22	4.82
	장단기 금리차 ¹⁾	0.14	-0.48	0.42	0.53	0.12	-0.02	-116.67
주 가	KOSPI	1,841.70	1,776.60	1,846.80	1,758.17	1,569.60	1,537.54	-2.04
	KOSDAQ	775.1	647.8	649.5	619.33	536.92	507.14	-5.55
환율 (₩/US\$)		938.3	987.2	1,038.20	1,031.07	1018.18	1047.11	2.84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CD

자료: 한국은행

■ 8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소폭 축소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축소
(7월 +2.5조원 → 8월 +2.2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 둔화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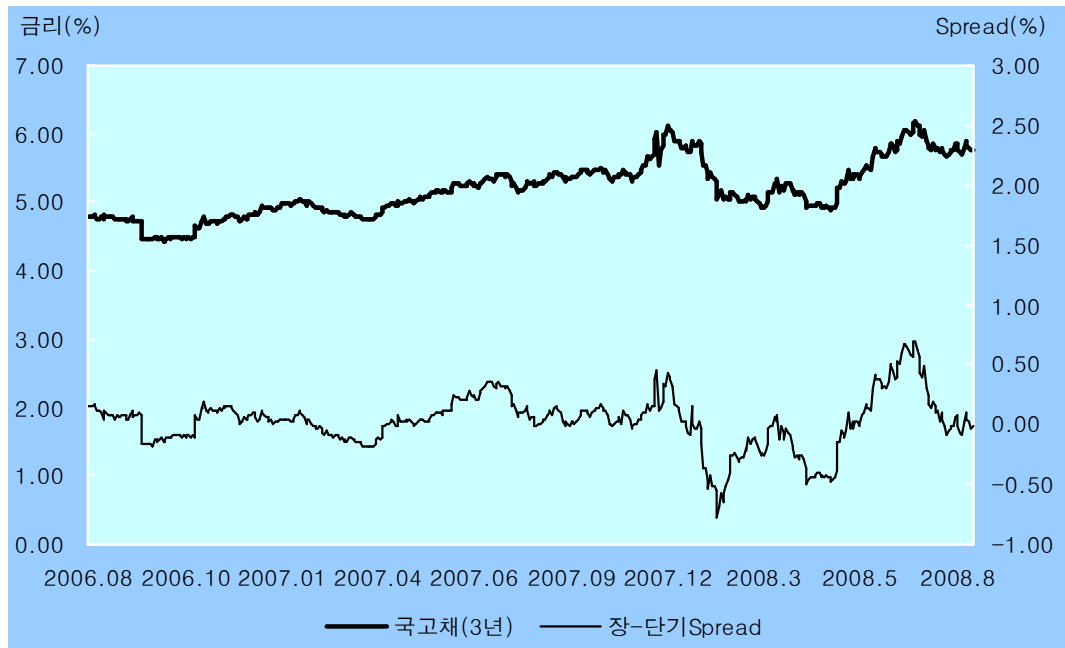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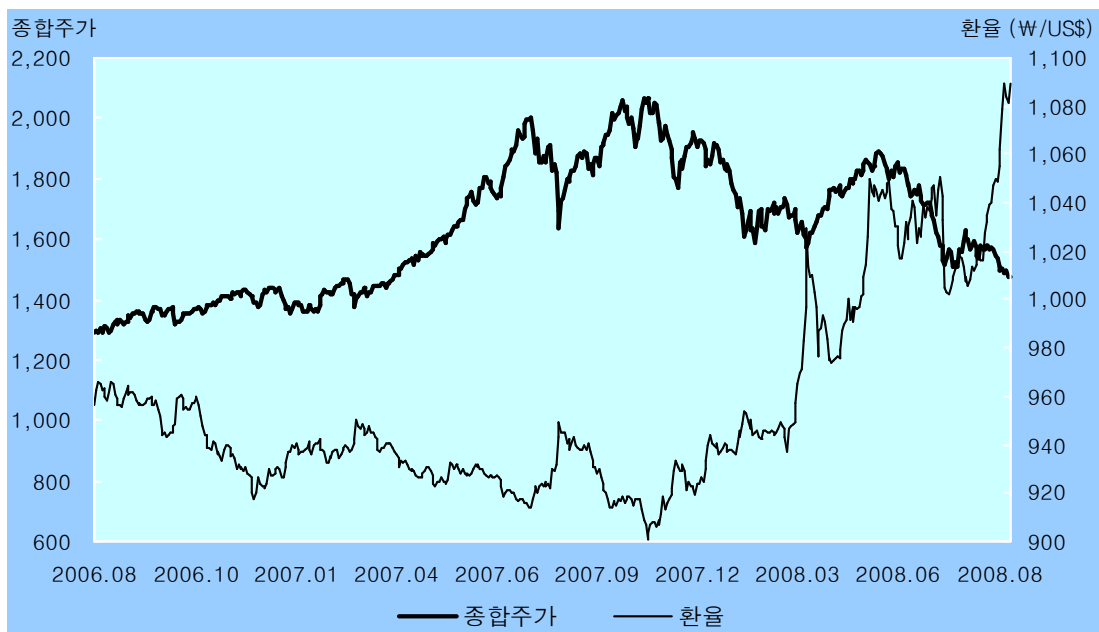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연중	4월	5월	6월	7월	8월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7월	8월	
가계대출 ¹⁾	17.8	3.4	2.7	3.1	2.5	2.2	379.2	381.4	0.58
주택담보대출 ²⁾	4.6	2.4	1.5	1.3	2.4	1.0	231.9	232.9	0.4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	1	1.2	1.8	0	1.2	145.4	146.5	0.76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대폭 증가

- 7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57조 6,580억원으로, 전월대비 18조 3,845억원 증가
- 7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70조 7,95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0조 6,909억원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7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예금은행	755,114.00	849,091.3	858,336.1	870,377.1	883,185.6	12,808.5
	비은행기관	239,701.40	266,942.6	268,482.0	268,896.4	274,472.4	5,576.0
	합계	994,815.40	1,116,033.9	1,126,818.1	1,139,273.5	1,157,658.0	18,384.5
서 울	예금은행	314,644.30	367,426.6	371,719.0	378,204.3	385,865.6	7,661.3
	비은행기관	74,682.10	84,265.6	84,093.6	81,900.3	84,929.9	3,029.6
	합계	389,326.40	451,692.2	455,812.6	460,104.6	470,795.5	10,690.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7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7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월보다 1.0%p 상승한 61.4%를 기록함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의 예대율 상승 폭을 상회하는 1.2%p를 기록하였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85.9	87.3	87.8	88.3	89.5	1.2
서 울	56.6	58.8	59.9	60.4	61.4	1.0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7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생계형 창업 증가(전년동월 대비)

- 7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006개로 6월에 비해 7.38%(344개) 증가함.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도 8.92%(410개) 증가
- 특히 344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금 1억 이하의 생계형 창업이었으며, 그 중 서비스업이 228개로 66.5%를 차지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대폭 증가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94개로 전월대비 10.33%(168개) 증가하였음

■ 서울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신설법인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14.62%, 5.37%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14.72% (29개)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596	4,790	4,113	4,662	5,006	344	7.38	410	8.92	
서울	1,738	1,687	1,487	1,626	1,794	168	10.33	56	3.22	
서비스업	1,408	1,352	1,212	1,279	1,466	187	14.62	58	4.12	
제조업	166	145	128	197	168	-29	-14.72	2	1.20	
건설 및 설비업	161	187	143	149	157	8	5.37	-4	-2.48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8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78개로, 전월(209개) 보다 31개 감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 0.01% 보다 0.01%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3개로 전월보다 7개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05개로 전월대비 24개가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이 각각 6개, 7개, 11개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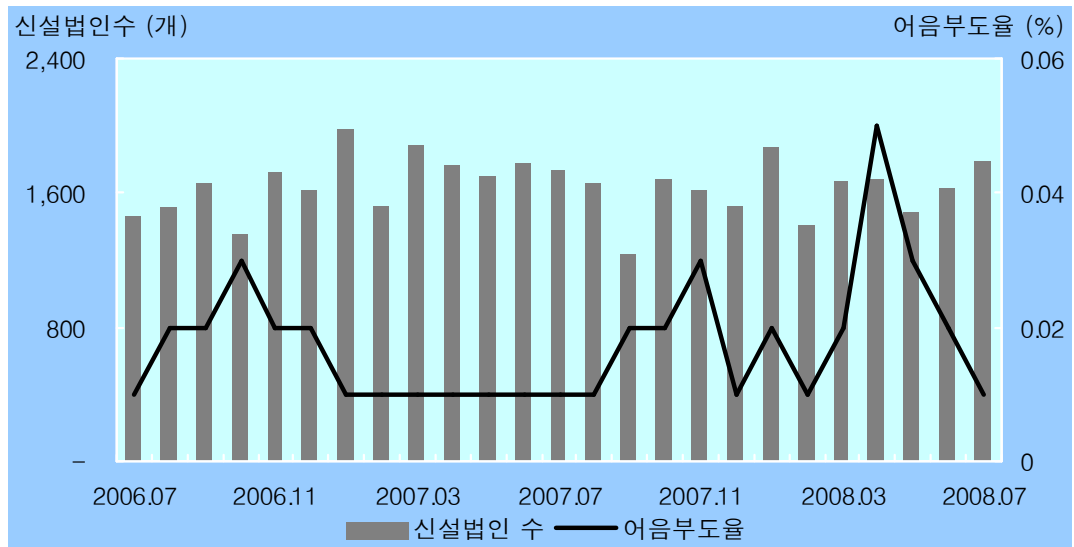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4	0.03	0.02	0.02	0	0.00	0	0.00
	부도업체 수	194	202	191	209	178	-31	-14.83	-16	-8.25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3	0.02	0.01	0.02	0.01	100.00	0	100.00
	부도업체 수	63	75	63	80	73	-7	-8.75	10	15.8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건당 평균금액 전월수준 유지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8월중 4,304건, 60,928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18.2%, 금액은 12.3% 감소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당평균금액은 전월수준을 유지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852	1,396	3,109	5,438	5,260	4,304	-956	-18.2	2,452	132.4
금액	31,927	54,741	53,541	79,027	69,452	60,928	-8,524	-12.3	29,001	90.8
건당평균금액	17.2	39.2	17.2	14.5	13.2	14.2	1.0	7.6	-3.0	-17.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타 업종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 8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기타업종의 비중(금액기준)이 6.3%p 증가하여 13.7%를 나타낸 반면 그 외 업종의 비중(금액기준)은 모두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34	1,587	1,071	807	505	4,304
비율	7.8	36.9	24.9	18.7	11.7	100
금액	6,421	22,386	13,067	10,685	8,369	60,928
비율	10.5	36.8	21.5	17.5	13.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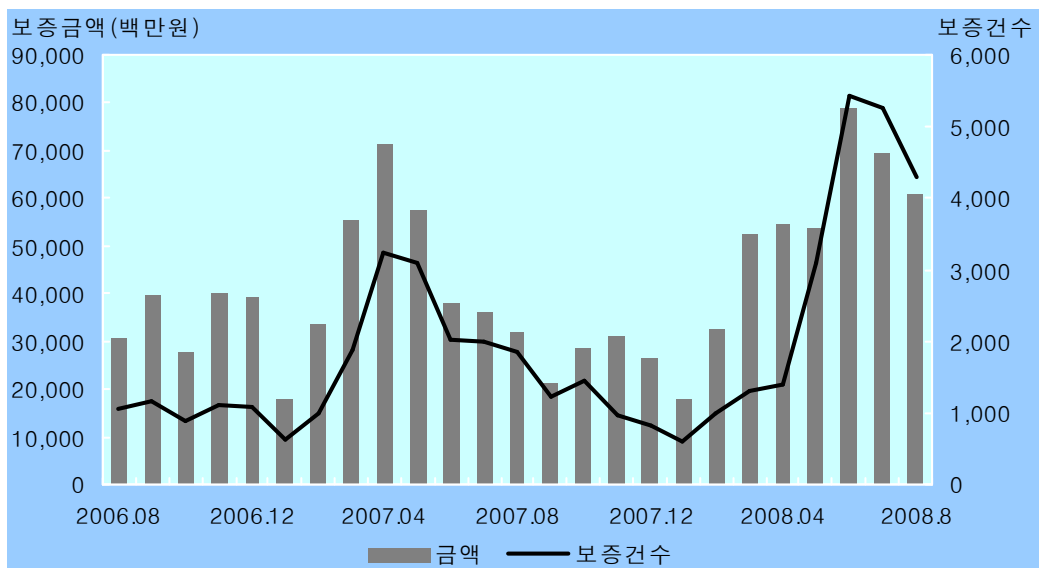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감소로 3개월 연속하여 증가하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4.0%p 감소해 89.3%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6	2008.07	2008.08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236	5,133	4,175	-958
	비율	96.3	97.6	97.0	-0.6
	금액	67,140	64,806	54,377	-10,429
	비율	85.0	93.3	89.3	-4.0
소기업	건수	159	108	111	3
	비율	2.9	2.0	2.6	0.6
	금액	8,074	3,617	5,128	1,511
	비율	10.2	5.2	8.4	3.2
중기업	건수	43	19	18	-1
	비율	0.8	0.4	0.4	0
	금액	3,813	1,029	1,423	394
	비율	4.8	1.5	2.3	0.8
합계	건수	5,438	5,260	4,304	-95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79,027	69,452	60,928	-8,52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 8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한 367.9억달러, 수입은 37.0% 증가한 406.0억달러를 기록
- 수출의 경우 선박, 석유제품이 전체적인 수출증가세를 이끌고 있으나, 과거 주력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 자동차는 감소세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입은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가 모두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37.0% 증가
- 특히 원자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와 철강재, 광물의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58.3%의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8월 기준 서울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의 수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였고, 수입은 7.99억달러로 33.7% 증가
-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7.5%, 4.3% 감소하여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났음

■ 8월 기준 수출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191,219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편직물, 고무제품,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80,645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철강관, 컴퓨터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철강관 및 철강선이고 수입의 경우 LPG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0,998	37,843	39,389	37,323	41,093	36,789	5,791	18.7	-4,304	-10.5	
	수입	29,642	38,038	38,469	37,756	43,029	40,601	10,959	37.0	-2,428	-5.6	
서울	수출	2,328	3,185	2,985	2,696	3,113	2,567	239	10.3	-546	-17.5	
	수입	5,973	8,217	7,724	7,146	8,348	7,986	2,013	33.7	-362	-4.3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8월		2007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191,219	-2.8	196,787	9.9
2	편직물	173,570	5.6	164,311	-7.9
3	고무제품	124,462	8.3	114,962	25.4
4	합성수지	106,959	-10.3	119,213	40.3
5	컴퓨터	105,109	21.4	86,601	6.8
6	의류	103,324	-12.1	117,520	-19.5
7	자동차부품	101,831	22.6	83,048	-7.7
8	철강관및철강선	93,525	828.1	10,078	97.4
9	정밀화학원료	75,318	131.6	32,525	12.2
10	무선통신기기	74,786	0.2	74,658	-14.1
합계		2,566,538	10.3	2,327,536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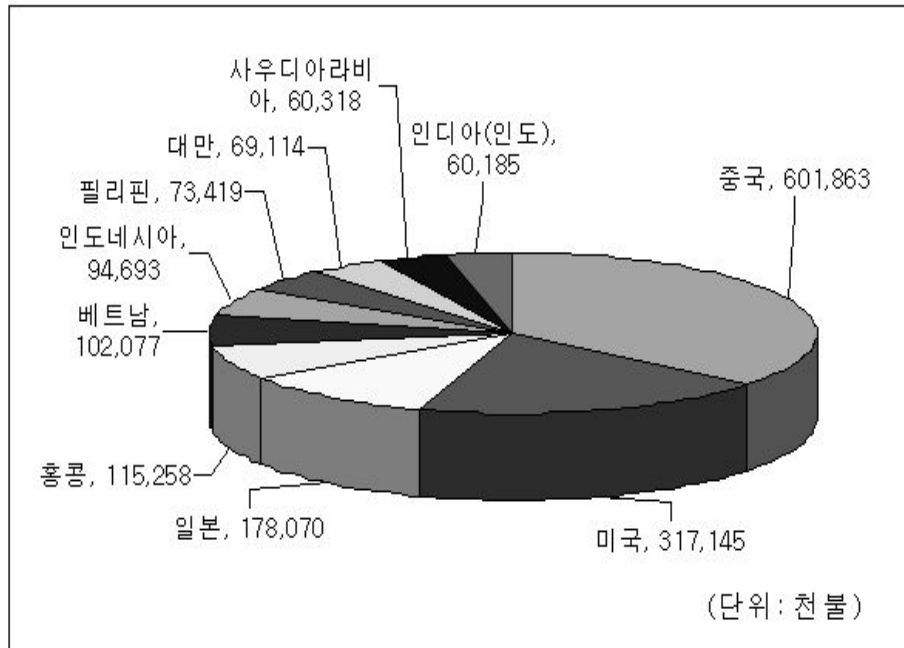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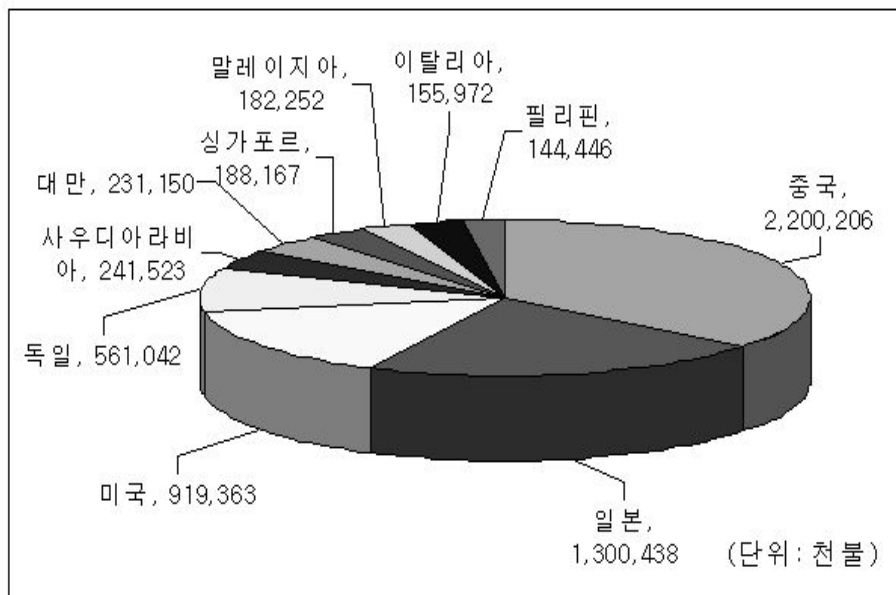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8월		2007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80,645	108.6	374,164	10.8
2	석유제품	434,177	162.8	165,243	55.3
3	철강판	376,908	263.8	103,607	65.7
4	컴퓨터	376,375	2.1	368,570	-12.9
5	의류	345,703	-3.9	359,920	82.5
6	자동차	293,122	37.3	213,438	-5.4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72,514	112.7	81,104	-27.5
8	LPG	172,384	4800358.7	4	-
9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157,305	3764.9	4,070	-
10	무기류	149,564	7256.7	2,033	-89.5
합계		7,985,702	33.7	5,973,056	14.4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